

漢代「方言」중 朝鮮方音에 관하여

孔 在 錫*

- | | |
|-------------------|--------------|
| I. 「方言」의 著作과 背景 | |
| II. 「方言」의 資料性 | IV. 「方言」의 板本 |
| III. 「方言」에 나타난 地名 | V. 朝鮮洌水之間方音 |

I. 「方言」의 著作과 背景

「方言」은 西漢(前漢)末 揚雄이 編撰한 當時 各地의 方音을 記錄한 一種의 字書類에 속하는 책이다.

揚雄(B.C 53—A.D 18)은 字는 子雲이고 蜀郡 成都人으로 漢宣帝 甘露元年(B.C 53)에 태어나서 新莽 天鳳五年(A.D 18)에 卒한 學者로, 當代 賦家로 文名이 있었고 더욱 그가 지은 法言이 評傳되고 있다. 그의 官職은 郎中 給事黃門을 거쳐 校書를 끝으로 文名을 남겼다. 특히 新莽時에는 劉歆이 그를 尊敬하여 天祿閣에서 校書를 지냈다. 揚雄은 그가 世上을 떠난 이후 점점 名聲이 났으니 모두가 그의 博識과 많은 著作 때문이었던 까닭이다. 文學方面에는 漢代의 여러 賦家들과 같이 그의 賦를 評價하고 있지만 文字學 方面에서도 그의 訓纂編과 方言이 主要著作으로 後世에 많은 影響을 주어 온 것이다. 더욱 方言 이책은 中國의 韻書가 있기 이전에 各地의 方音을 記錄하고 있는 最初의 書라는 점에서도 그 價値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揚雄의 訓纂篇과 方言을 中心으로 그 당시의 文字學관계와 語音에 대한 關心을 얼마간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揚雄은 다른 小學家들에 비하여 語音方面에도 細心한 注意를 했었던 것이 特點이라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西漢末 東漢에 이르러 小學은 그 基盤을 세우기 시작하였던 것이며 이것은 秦代의 文字統一 運動과 漢初의 文字整理運動에 이어져 먼저 初學의 基礎가 되는 字書類의 制作과 그 整理라고 할 수 있다. 더욱 漢代學術이 經典의 解釋에 있어 訓詁를 重視하여 單字의 注釋이 크게 流行 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作業의 代表가 東漢의 許慎이 만든 說文解字가 그 精華인 것이다.

漢代 字書類의 概況을 보면 漢代初年に 閭里的 書師들이 秦나라 李斯의 倉頡篇, 趙高的 爰歷

*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專任講師, 中國語學

篇, 胡毋敬의 博學篇등 5篇을 합하여 倉頡篇이라 명명하였고 60字를 1章으로 하고 1章은 15句로 하고 1句는 4言으로 하여 50章 3,300字의 字書가 있었고, 이것이 宣帝때에 와서 이미 古字들이 많고 알지 못하는 글자가 있어 一般書師들이 그 정확한 讀法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齊人으로 이 古文字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물었으니 이때 張敞이 선발되었고 그 外孫 杜林이 이어 받고 그는 倉頡故와 倉頡 訓纂篇을 지어 小學의 創始가 되었던 것이다. 그후 다시 哀帝時 많은 學者들이 未央庭에 모여 文字를 다루었던 것이다. 揚雄은 爰禮등이 論한 文字중 有用한 것을 골라 訓纂篇을 만들었고 아울러 爾雅에 가까운 方言을 만들었던 것이다. 揚雄의 訓纂篇은 倉頡篇의 重複된 글자들을 改易하여 모두 39章으로 5,340字나 되었다.

이 보다 앞서 武帝時에는 司馬相如의 凡將篇이 있었고, 元帝時에 史游의 急就篇, 成帝때 李長의 元尚篇이 있었고, 和帝때 賈魴의 滂熹篇 34章 2,040字가 있었다. 漢初의 倉頡篇과 揚雄의 訓纂編 賈魴의 滂熹篇을 三倉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상이 秦나라 이후 漢代의 개략적인 字書들인 것이다.⁽¹⁾

아마도 揚雄이 訓纂篇과 方言을 만들게 된 것은 모두가 그 當時 文字言語에 대한 一種의 學風에서 影響을 받을 것이라 할 수 있다.

西漢에서 文字로 著名한 사람은 揚雄이고 東漢에서는 蔡邕 許慎이었다. 漢書에는 劉歆(劉歆子)이 일찍 揚雄에게서 奇字를 배웠다고 한 점으로 보아도 揚雄이 文字에 博識하였음을 알 수 있다.⁽²⁾ 漢書藝文志에는 訓纂一篇, 別字十三篇, 倉頡傳一篇이 揚雄作이라 하고 있으나 그 책은 佚失되었다.

漢代의 小學이 晉代에 들어 와서는 앞에 있던 字書들을 注를 다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孫炎 등은 爾雅注, 郭璞은 方言注, 三倉注, 爾雅注 등이 있어 倉雅學(倉頡篇 爾雅 등 最初의 字書類로 訓意書들)의 極盛을 이룬 것이다. 아울러 聲韻 方面에도 이때 붙어 發展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漢末에 劉熙가 지은 釋名은 聲訓書의 最初로 후에 韋昭의 辨釋名이 나왔고, 孫炎의 爾雅音義가 나와 反切을 取用함에 語音에 대한 注意를 系統的으로 하게 된 것이다. 물론 晉代에는 李登의 聲類 呂靜의 韻集을 始初로 韻書들이 峯出하였던 것이다. 이보다 일찍 方言에서 당시의 語音이 各地가 다름을 一面이나마 記錄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訓義로 注한 字書들에 比하여 方言을 中心으로 叙述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特點이라 할 수 있다.

方言 이후의 字書와 注書들은 方言을 引用하고 있으니 說文解字와, 李善의 文選注, 孫炎의 爾雅注, 杜預의 左傳注에서도 方言을 引用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方音을 利用하여 訓釋하는데도 用心을 하였던 것이다.

方言도 다른 字書와 마찬가지로 後代에 增加되어 온 것이니, 現傳하는 方言은 11,900餘字로

(1) 龍宇純: 中國文字學 第四章 中國文字學簡史

(2) 漢書: 揚雄傳